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2007)의 복식과 색채 상징성
- Queen Elizabeth의 복식을 중심으로 -

권혜수* · 조규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stume and Color Symbolism of the Movie
<Elizabeth: The Golden Age(2007)>

- Focusing on Queen Elizabeth -

Kwon, Hye-Soo* · Cho, Kyu-Hwa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symbolism of color in the clothing of women, focusing on the protagonist of the movie Elizabeth: The Golden Age (2007). At the beginning of the movie, the Queen wears gowns with cartwheel ruff and wheel farthingales, symbolizing the attempt of establishing a powerful majesty. However, the Queen falls in love with Walter Raleigh and her clothing comes to emphasize femininity displaying her cleavage. Later on, her clothing indicates charismatic authority as she prepares for the Spanish war. At the end of the movie, the Queen who led the country to victory in war puts on a luxurious gown with butterfly wings that reminds of a fairy queen. The colors of the Queen's clothing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First, the color red represents two opposite allegories. The positive image of red denotes Christ's blood, the love of God, and noble status of the Queen's image as a savior of England. On the other hand, red represents lewdness and evil which insinuate that the Queen is being attacked on her religious and political genuineness. Second, the color blue represents Saint Maria, chastity, and divinity. Third, the color gold and white represent the Queen's ideals which are chastity as a virgin Queen and divinity.

Key Words : movie costume(영화 의상), queen Elizabeth collar(퀸 엘리자베스 칼라)
wheel-farthingale(휠 파팅게일), color symbolism(색채 상징성), gold(금색)

Corresponding author: Kwon, Hye-Soo, Tel.+82-11-9844-3374
E-mail: hesuaa@hanmail.net.

I. 서론

복식은 한 인간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보를 그대로 나타낸다. 특히,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복식은 이를 착용한 사람의 이미지뿐 만 아니라, 그 시대의 고유한 문화와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준다.

이러한 복식에서 색채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¹⁾ 색채의 우의(寓意)와 기분상징의 역할은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의 묘사 이외에 영화의 주제, 전개 될 사건, 결말 등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따라서 영화 속 복식과 색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캐릭터, 그 시대의 문화와 복식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에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²⁾는 무대 의상, 초상화 및 영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다룬 영화인 세카르 카푸르 감독의 <Elizabeth: The Golden Age (2007)>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었으며, 여왕 복식의 특성과 복식의 상징성을 함께 다룸으로써 극의 전개, 캐릭터의 특성, 심적 변화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영화 속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과 색채 상징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시대극 영화의상을 연구함으로써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복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영화 의상 디자인에 새로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 영화에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복식과 색채 상징성의 가치를 재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는 2008년 제 80회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의상상을 수상하였고, 16세기 말 엘리자베스 여왕은 '패션 아이콘'으로 영국 복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기 때문에 그녀의 복식과 색채 상징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5-1603)의 치세시기(1558-1603)중 영화의 배경(1585-1588)이 되는 시기로 한정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연기한 여배우 케이트 블란쳇 (Catherine Blanchett, 1969~)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내용은 먼저 영화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복식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본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감독 세카르 카푸르(Shekhar Kapur, 1945~)와 의상감독 알렉산드라 번(Alexandra Byrne, 1962~)의 표현방식을 살펴보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캐릭터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과 그 색채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은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의 DVD,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기사 및 시각 자료와 『성서(개혁개정판, NIV)』, 『요정의 여왕(Fairy Queen)』 비롯한 여러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과 색채 상징성을 고찰하였다.

II. 영화 <Elizabeth : The Golden Age>의 배경

1. 시대적 배경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의 시대적 배경은 1585-1588년으로 영국은 정치와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무엇보다 구교와 신교가 대립하는 종교적 갈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인 헨리 8세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헨리 8세에 이어 즉위한 메리 여왕(Mary I, 1516-1558)이 후사가 없이 죽자, 헨리 8세(Henry VIII, 1491-1547)와 앤 블레인(Anne Boleyn, 1507-1536)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업적을 살펴보면, 종교 문제에 있어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사용하여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영국 국교회를 굳건히 확립시켰다. 그러나 구교도들은 종교적 전통성을 내세우며 여왕에게 반란을 도모하였고, 급기야 영국에 망명 중이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 1542-1587)의 사주 아래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

(배빙턴 음모, 1586)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편, 대외정책에 있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 유럽 외의 지역으로 영국의 역량을 넓혀 나갔다. 1584년 엘리자베스의 신하 월터 라일리(Walter Raleigh, 1552-1618)는 오늘날의 아메리카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의 로어노우크(Roanoke)섬에 식민지를 개척하였고 이 땅을 처녀(Virgin)여왕을 기념하여 버지니아(Virginia)라 이름 지었다.³⁾

문화면에서 여왕은 문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특히,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와 같은 위대한 문인들의 활동으로 국민 문학이 발달하여 영국인들의 자긍심은 한층 더 높아졌고 영국 르네상스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⁴⁾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으로 영국은 해상 대국으로 떠올랐고 개신교의 수호자로 유럽 대륙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종교와 식민지 정책에 있어 대립양상을 보이는 스페인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⁵⁾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Felipe II, 1527-1598)는 메리 스투어트의 처형을 빌미로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Invincible Armada)를 출정시켰다. 종교와 정치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에서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를 무찌름으로써 유럽의 막강한 해상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영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의 시기(The Golden Age)를 맞게 되었다.

2. 당시의 복식사적 배경

영화 <엘리자베스: The Golden Age>의 배경이 된 시기는 1585년-1588년으로 영국 르네상스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의 여성 복식은 르네상스라는 시대정신과 어우러져 인체의 아름다움을 살리고자 하였고 더불어 인체의 인위적인 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 복식에 파팅게일(farthingale)로 스커트를 과장시키고 보디스(bodice)를 코르셋(corset)으로 조이는 팽대 복장의 가운데 유행하였고 스토마커와 스커트 앞자락에 수를 놓거나 장신구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그림1>.⁶⁾ 파팅게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여왕은

웅장한 외관의 휠 파팅게일(wheel-farthingale)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스페인식 파팅게일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어서 매우 과시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므로 궁정복과 의식복으로 애용되었다.⁷⁾ 휠 파팅게일의 경사는 1580년대 초기의 형태는 허리에서 약간의 경사를 이루었으나 15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크게 증가하여 48인치까지 넓어졌다.⁸⁾

보디스는 풍성한 스커트 실루엣과 대조적으로 좁고 긴 형태로 끝이 극도로 뾰족해진 스토마커는 허리선에서 8-9인치 정도로 깊게 내려와 허리를 더욱 날씬해 보이게 해 주었다.⁹⁾ 코르셋의 일종인 바스킨(basquine)과 코르피케(corps-piqué)를 사용하여 허리를 조였고 보디스의 앞쪽은 V자형으로 파서 역삼각형의 화려하게 보석과 자수로 장식된 스토마커로 채웠다<그림2>.¹⁰⁾

칼라형태로는 수레 바퀴형 러프 칼라(cartwheel ruff), 부채형 러프 칼라(fan-shaped ruff), 와이어 칼라(wired collar)가 유행하였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호한 부채형 칼라는 여왕의 이름을 따서 퀸 엘리자베스 칼라(queen Elizabeth collar)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였다. 부채형 러프 칼라는 수레 바퀴형 러프 칼라에서 동그랗게 감싸던 러프의 앞부분을 양 옆으로 펼쳐 자연스럽게 데콜테된 형태로 여성스러움과 위엄을 동시에 나타내 주었다.¹¹⁾ 또한 여왕은 부채형 칼라와 함께 버터 플라이 윙(butterfly wing)을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패션리더였던 그녀가 직접 창안한 것이었다.¹²⁾ 원형의 나비 날개 모양 철사 두 개를 달고, 철사 안쪽은 흰색의 거즈나 실크로 채워 가장자리를 진주나 보석으로 꾸민 장식으로 영국 복식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였다.¹³⁾ 소매는 햄 셰이프형 소매(ham-shaped sleeve)가 유행하였고, 여러 개의 소매를 제작하여 보디스에 연결하였는데 연결 부분에 장식성이 강한 에폴렛(epaulette)을 부착하였다<그림3>.

머리모양은 복식이 화려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해졌고 여왕은 볼륨감 있는 머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가발을 즐겨 착용하였다. 특히, 여왕은 양털같이 오글거리는 컬러 붉은색 가발을 선호하여 궁정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머리 모양은 항상 이마를 드러냈고 앞가르마를 타서 가운데 중심 쪽은 낮고 양 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머리 형태와 가르마 없이 머리

카락 속에 철사나 패드를 넣어 머리를 띄우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¹⁴⁾ 더불어, 여왕 복식의 화려함은 장신구와 소품의 착용으로 완성되었다. 앞가슴에 커다란 펜던트(pendent)나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스커트의 중앙에는 줄을 늘어뜨려 지갑, 거울, 향로갑 등을 달았다. 장갑, 부채, 손수건 등의 소품은 실용적 목적보다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장갑은 고급 직물과 가죽으로 만들었고 손목 부분에 금은사나 실크사로 수를 놓았다.¹⁵⁾ 부채는 타조나 공작털, 실크로 손잡이 부분 금, 은, 상아 등으로 만들었으며 종종 손잡이를 금, 은, 상아 등으로 만들어 광택이 낮으므로 매우 화려하였고 작은 거울을 손잡이 바닥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손수건은 주로 가장자리에 레이스를 달거나 컷워크(cut-work)하였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실크 스타킹을 애용하였다. 여왕 즉위 2년에 신년 선물로 받은 검정색 실크 스타킹을 신은 후, 우아하고 섬세하게 짜여진 실크 스타킹만을 고수하였다.¹⁶⁾

3.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색채 상징성

영화의 배경이 되는 1585년-1588년 유럽은 르네상스 문화가 융성한 시기였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유럽 대륙에 비해 엄숙하고 도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종교적 윤리적 색채가 강하였고, 종교 개혁과 인문주의에 있어 중세의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¹⁷⁾ 이러한 경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세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기독교 사상이 여전히 지배적이었으므로 엘리자베스 시대의 색채 상징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독교 경전인 『성서(개역 개정판·NIV)』와 엘리자베스 여왕을 주인공으로 하여 여왕을 비롯하여 궁정 귀족들에게 널리 읽혀진 당시의 문학작품인 스펜서의 『요정의 여왕 (The Fairy Queen)』을 바탕으로 엘리자베스 시대의 색채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붉은색 범주

16세기 후반, 영국에서 붉은색 계통은 양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먼저 긍정적 의미로는 예수의 피, 신의 사랑, 성령, 순교자를 상징하여 예수 수난,

성 금요일, 오순절 등에 사용되었다.¹⁸⁾ 이와 같이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피나 성령처럼 신의 사랑, 신을 상징한 색채였다. 더불어 신과 같이 절대적 존재로 인식되고 싶었던 황제나 교황같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상징하는 색으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붉은색은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군주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색채로 군주의 위엄과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였다.¹⁹⁾

반면에 붉은색은 부정적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붉은색이 성서에서 음녀, 마귀를 상징하는 것에 기인하여 엘리자베스 시대에도 창녀, 사형수같이 사회적으로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붉은색 복식을 입혔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시대의 붉은색 계열은 양가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성서』와 『요정의 여왕』을 통해 붉은색의 양가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① 구원자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붉은색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²⁰⁾

② 창녀를 상징하는 붉은색

The woman was arrayed in purple and **scarlet** colour.(중략) In her handfull of abominations and filthiness of her **fornication**.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중략)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 계시록 17장 4절)²¹⁾

③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색

A gentle knight was pricking on the plaine. On his brest a **blood** cross he bore, the deare remembrance of his dying Lord.

한 송고한 기사가 들판으로 말을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지니고 있었는데, 구주께서 죽으심에 대한 사무친 기억의 징표였다.

(1칸토 1-2장)²²⁾

④ 엘리자베스 여왕을 대적하는 두엣사를 상징하는 붉은색

That scarlet whore to keepen carefully.
그 진홍빛의 창녀를 주의깊게 지키고 있으라.
(8칸토 29장)²³⁾

2) 파란색 범주

파란색 계통은 마리아, 신성, 신교도의 절제를 상징하는 도덕적인 색으로 여겨져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⁴⁾ 기독교 색채관에서 파란색은 12세기부터 등장하는데 교회 건축이 회화, 스텐인드 글라스 등으로 화려해지면서 파란색은 신성한 빛, 천상의 빛으로 간주되어 핵심적인 색으로 떠올랐다.²⁵⁾ 16세기, 마리아의 가운을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마리아의 종교적 이미지에 염색 기술의 발달로 선명한 파란색이 만들어지면서 파란색은 왕이나 귀족같은 상류층의 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6세기에는 종교 개혁으로 사회 전반에 도덕성이 강조되자, 파란색은 무채색에 뒤이어 성실, 절제와 연관된 색이 되었다. 실제로, 검은색만 입던 종교 개혁가 루터(Luther, 1483-1546)도 파란색 옷을 입었고, 칼뱅(Calvin, 1509-1564) 또한, 파란색을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색으로 표현하는 등 파란색은 도덕적인 색채가 되었다.²⁶⁾ 성서에서 신성을 상징하는 파란색은 다음과 같다.

① 신성을 상징하는 파란색

Moses and Aaron, Nadab and Abihu, And the seventy elders of Israel went up, and saw the God of Israel. Under his feet was something like a pavement made of sapphire, Clear as the sky itself.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출애굽기 24장 10절)

3) 금색

기독교의 금색은 신의 조명(illumination)을 상징하는 색이었는데 이는 금색이 빛을 가장 실체에 가깝

게 드러내기 때문이었다.²⁷⁾ 이렇게 신의 존재를 빛으로 나타냄에 따라, 기독교에서 예수를 숭배하는 의식은 빛을 상징화함으로 거행되었다.²⁸⁾ 이러한 영광의 금색은 고귀한 신의 색일 뿐 아니라 세속의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였다. 왕들은 금이 영원성을 상징했기 때문에 황금에 집착하였고 이러한 색채감정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왕에게 금색을 통해 신이나 제왕의 고귀함과 희소성을 드러냄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²⁹⁾

엘리자베스 여왕 또한 왕권의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금색을 썼는데 특히 왕권에 대한 정통성에서 공격을 받아 온 여왕으로서는 금색이 지닌 색채상징이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색채관이 잘 반영된 『요정의 여왕』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상징하는 유나를 금색으로 묘사하는데 유나는 왕의 적통이자 유일한 상속자로 인간에게 신의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금색의 색채 상징성을 『성서』와 『요정의 여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의 조명(illumination)을 상징하는 금색

Out of the north comes golden splendor, Around God is awesome majesty.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욥기 37장 22절)³⁰⁾

② 엘리자베스 여왕을 상징하는 금색

The first Un', his only daughter dear To the world does bring long-wished light So faire and fresh that lady shewd herself in sight.

가장 아름다운 <유나>, 그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딸, 오랫동안 희구하던 빛을 세상에 가져다 주기 위해 동편에서부터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12칸토 21장)³¹⁾

4) 흰 색

기독교적 색채관에서 흰 색은 예수의 영광과 위엄, 천사, 죄 사람 등을 상징하여 성탄절, 공현절,

부활절, 예수 승천일에 사용되었다.³²⁾ 이렇게 성서에서의 흰 색은 그리스도와 천사같이 신성한 존재를 상징하는 색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성직자들은 흰 옷을 빛의 상징, 기쁨, 영광, 순수, 순결 등을 나타내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였다.³³⁾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도 이러한 기독교적 색채관이 반영되어 흰색은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 순결을 상징하였다. 실제로 여왕은 시가행진을 할 때 흰색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처녀적 순결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을 천상의 존재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특히 흰색을 통해 여왕이 나타내려고 했던 색채상징성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주인공으로 쓴 『요정의 여왕』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글로리아나는 여왕을 상징하는 여성으로 흰 색을 통해 처녀여왕의 순수함,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흰색의 상징성을 『성서』와 『요정의 여왕』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흰색이 긍정적 의미로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

His head and hairs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그-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요한 계시록 1장 14절)³⁴⁾

② 엘리자베스 여왕의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That greastest Gloriana to him gave Upon a lowly asse more white then snow, yet she much whiter So pure and innocent, as that same lamb.

가장 위대한 글로리아나가 그에게 말긴 일로서 눈보다 더 흰 어린 나귀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나귀보다 훨씬 더 희었으나 그녀는 그 양처럼 너무나 순결하고 순진하였다.

(1칸토 3-5장)³⁵⁾

III.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과 감독의 작품 경향

1. 시대극 영화의상의 특성

영화는 대중매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시각적이어서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며 특히 현실감각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매체이다.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극 중 이미지는 현실로 재생산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극중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데 영화의상과 소품들은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 관객에게 극중 인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복식의 상징적 의미로서 극의 전개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복식의 상징적 의미는 복식의 색채상징성을 통해 나타난다. 색채는 각각의 우의를 담고 있으며 이 우의가 보편화되어 어떤 기본상징을 떠오르게 하고 이것은 시각적 매체인 영화에서 등장 인물의 성격과 심리상태, 신변과 극의 전개를 돕는다.³⁶⁾

또한 시대극의 경우 영화의상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극이 전개되는 시대에 맞는 고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영화는 제작되고 상영되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며, 나아가 그 시대의 유행을 창조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영화는 종합예술임과 동시에 산업이기 때문에 영화의상이 극의 전개를 돕고 주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영화 속 이미지는 현실로 재생산되어 그 시대의 유행을 반영하며 나아가 새로운 유행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극의 의상은 시대적 고증이 밀받침된 현사회의 미의식을 함축한 재해석이 필요하다.³⁷⁾

본 연구의 대상인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의 의상감독 알렉산드라 번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복식에 최근의 패션 감각을 가미하여 호평을 받았다. 영화의 시대배경인 1585년-1588년의 엘리자베스 여왕 복식은 인체미의 강조와 더불어 인위적인 축소와 과장하는 팽대복장 가운데 화려한 디테일 장식이 특징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라 번은 16세기 후반 영국 여성 복식을 그대로 고증하지 않고, 당시의 인위적이고 웅장

한 패대복장에 모더니즘을 접목시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여왕 복식을 만들어냈다. 알렉산드라 번의 이러한 시도는 영화의상에 있어 고증에만 충실했던 기존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화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2. 영화의 작품 경향과 감독

1) 영화 감독 세카르 카푸르(Shekhar Kapur, 인도)

영화 <Elizabeth : The Golden Age>의 감독 세카르 카푸르는 인도 뭄바이 출신으로 1985년 <머숨>(Masoom, 1985)으로 감독에 데뷔하여 주목을 받았고, 1994년 작품 <밴티드 퀸>(Bandit Queen, 1994)이 칸느 영화제 감독 주간에 상영되면서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영화'에 선정되며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다.³⁸⁾ 1998년 작 <엘리자베스>(Elizabeth, 1998)는 그가 영어로 제작한 첫 번째 영화로 최우수 작품상, 여우 주연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영광을 누렸다. 1998년, <Elizabeth>에서는 똑똑하고 야심도 있지만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소녀'로서 엘리자베스 공주를 그려냈고, <Elizabeth>의 후속작인 <Elizabeth : The Golden Age>에서는 평생 버진 퀸으로 살아가야 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통치자로서의 강한 모습 등을 총체적으로 다뤄 기존 엘리자베스 영화들에 비해 더욱 사실적인 여왕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세카르 카푸르의 작품 경향은 여성 주제의 색채가 짙는데, 그가 제작한 다섯 편의 영화 중 세 편의 영화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실화를 바탕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코스튬 드라마(costume drama)라는 장르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복식을 통한 의미 전달에 심혈을 기울였고,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의상·소품 등을 이용하여 영화의 이해를 도왔다.³⁹⁾ 카메라 기법에 있어서는 카메라 앵글을 멀리서 잡아 서사극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한편으로는 가까이서 등장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함으로써 등장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는 카메라 워크(camera work) 기법을 사용하여 시대극 영화의 웅장함과 배우의 섬

세한 심리 묘사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2) 의상 감독 알렉산드라 번 (Alexandra Byrne, 영국)

① 일반적인 의상 경향

알렉산드라 번은 불과 다섯 편의 영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진행하는 작품마다 시대적인 트렌드를 정확히 간파하여 새롭게 디자인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 또한 시대적 고증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부각시켜 의상을 통해 인물들의 성격까지 고스란히 담아내는 재능을 가졌다. 그녀가 영화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영화 <설득>(Persuasion, 1995)을 통해서였고 그 후, <햄릿>(Hamlet, 1996), <엘리자베스>(Elizabeth, 1998), <네버랜드를 찾아서>(Finding Neverland, 2004) 등 세 편의 영화가 아카데미 의상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Elizabeth : The Golden Age>로 제 80회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하였다.

② 본 영화에서의 복식 경향

영국이 국적인 그녀는 <Elizabeth : The Golden Age>에서 16세기 후반 영국의 시대상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영화 속 여왕 복식은 시대적 고증을 밑받침으로 현 사회의 미의식을 함축하여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알렉산드라 번은 코르셋과 파티게일에 의한 지나친 축소와 과장을 피하고 형태적인 면에서 현대의 모더니즘을 반영하여 당시 복식의 과장된 볼륨감을 줄였으며, 디테일 장식에 있어 특정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 장식함으로써 당시 복식의 화려함을 살림과 동시에 현대의 절제미를 보여 주었다. 또한 알렉산드라 번은 16세기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의 여성성을 극복하기 위해 강조한 버진 퀸, 여신의 이미지를 복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알렉산드라 번은 1500년대 그림,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화와 유니크한 컬러와 복고적인 스타일을 선보여온 스페인계 패션 디자이너 발렌시아가의 작품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착용한 정교한 자수와 금 레이스, 보석의

달린 벨벳 스토타커가 달린 가운과 다이아몬드와 루비, 진주 등 다채로운 보석으로 꾸민 장신구 등은 복식을 통해 엘리자베스 여왕의 강력한 위상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⁴⁰⁾.

IV.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캐릭터와 복식

영화의 시대배경인 1585년-1588년의 엘리자베스 여왕 복식은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인체를 극도로 왜곡시키고 과장하는 형태의 팽대복장과 다양한 디테일 장식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왕 복식의 특징은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나약함의 상징인 여성으로 통치를 해야 했던 여왕이 과장된 복식을 통해 여왕으로서의 권위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주인공 엘리자베스 여왕 복식을 중심으로 16세기 후반 복식의 특징과 현대적 해석을 통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영화 속 엘리자베스 여왕의 캐릭터

영화<Elizabeth: The Golden Age>의 엘리자베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의 모습과 사랑 앞에 힘들어하는 여성의 모습을 모두 다루고 있다. 여왕은 군주로서 강력한 통찰력과 외교력으로 남성의 기능까지 훌륭하게 완수했지만 그녀가 여성이고 미혼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정치적 약점으로 남아 있었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처녀 여왕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여 정치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월터 라일리를 사랑하게 되면서 여왕은 여왕으로서의 권위, 정절과 여성으로서의 사랑 앞에서 갈등하면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결국 여왕은 사랑을 잃고 괴로워하지만, 사랑 앞에 힘들어 하는 모습이 여왕의 전부는 아니다. 여왕은 한 여자의 삶보다는 영국의 여왕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스페인과의 해전을 승리로 이끈다. 다시 말해, <Elizabeth: The Golden Age>에서의 여왕의 모습은 16세기 영국의 혼란스러운 대내외 정세 속에서 여왕의 신분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한 여자, 정치적 음모에 맞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 스페인과의 해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전사 등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2. 권위적인 복식

- 1) 거대한 러프 칼라의 파팅게일 가운
- 2) V자형 머리장식

남자대신들과의 관료 회의를 주재할 때 여왕은 단정하고 권위적인 복식을 착용한다. 당시, 여왕은 종교적 전통성 때문에 구교도들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여성이자 미혼인 여왕의 위치는 여성을 남성의 부수물로 여기던 사회 분위기에서 큰 약점이 되었기 때문에 복식을 통해 악조건을 극복하고 강력한 여왕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⁴¹⁾ 알렉산드라 번도 복식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의연하게 헤쳐나가는 강인한 여왕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복식에서 신체의 노출과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이 네크라인에 목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수레 바퀴형 러프 칼라와 커다란 V자형의 머리 장식으로 여성스러운 아름다움보다는 여왕의 위용과 권위를 나타내었다<그림 4>.

3. 여성스러운 복식

- 1) 망사 러프칼라 2) 망사 파들렛
- 3) 망사 소매가 달린 가운

월터 라일리를 사랑하게 되면서 여왕 복식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여왕이 신항로를 개척한 진취적인 남성, 월터 라일리에게 모험담을 들으며 그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장면에서 네크라인이 깊게 내려오면서 가슴의 윗부분이 많이 노출된 복식을 착용하였고 여성스러운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다. 이렇게 데콜테(décolleté)된 가운데서는 코르셋은 허리를 잘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슴을 위쪽으로 올려 주는 역할도 하여 여성스럽고 풍만한 가슴을 만들어 주었다. 데콜테된 목과 가슴을 가리기 위해 얇고 투명한 망사 파들렛(partlet)을 착용했는데, 여기에 금색 구슬을 달아 장식하였고 같은 소재로 작은 크기의 수레 바퀴형 러프 칼라를

파들렛과 연결시켰다. 알렉산드라 번은 여성성을 부각시킨 육감적인 여왕을 표현하기 위해, 파들렛의 가운데 부분은 맨 살이 드러나게 하였고, 파들렛의 망사로 투명하게 소매를 만들어 더욱 선정적인 여왕 복식을 만들었다<그림 5>.

4. 호전적인 여왕 복식 (갑옷)

- 1) 흉주름과 보석장식
- 2) 부피감있는 플라스트런

스페인과의 해전을 진두지휘할 때 여왕은 전사를 연상시키는 호전적인 복식을 착용하였다. 실제로 여왕은 스페인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극 중 카리스마 넘치는 여전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갑옷을 착용하였다. 알렉산드라 번은 비교적 16세기 갑옷의 시대적 고증에 충실하게 갑옷을 제작하였고 이것은 그녀의 전사적인 모습에 더욱 신뢰를 부여하였다. 16세기 갑옷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형태와 장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복식 유행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⁴²⁾ 먼저 형태적인 변화로 몸판을 이루는 플라스트런(plastron)이 공처럼 둥글거나 밖으로 굽는 윤곽을 갖게 되어 기존의 갑옷보다 더욱 부피감이 있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팽대복장의 부피감과 유사하다. 또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미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벨벳이나 공단과 같이 값비싼 직물의 주름이 잡히는 효과를 모방하여 갑옷에 흉 주름을 잡아 장식성을 높였다.⁴³⁾

알렉산드라 번이 재해석한 갑옷은 플라스트런과 파울드론에 부피감을 주어 당시의 유행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전장에서 여왕의 체구가 커 보이는 효과를 얻었다. 장식적인 면에서는 플라스트런에 사선 모양의 흉주름과 파울드론에 가로 흉 주름을 잡아 갑옷의 장식성을 배가시켰다. 가슴 중앙에는 당시의 유행대로 보석을 장식하였으나 과다한 장식을 피하여 여왕 복식 전반에 나타나는 모던함과 절제미를 보여주었다. 또한 목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철제 깃인 파스가르드(passegarde)를 직물로 제작하여 갑옷의 형태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소재를 달리 하여 활동성과 심미성을 높였다<그림 6>.

5. 여신 이미지의 복식

- 1) 웅장한 가운
- 2) 화려한 장신구의 조화

스페인전을 승리하고 여왕을 배신하고 월터 라일리과 결혼한 베스를 용서할 때, 여왕의 복식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여왕은 팬 칼라, 버터 플라이윙, 화려한 보석 장식의 스토마커, 흰 파팅게일, 주름이 많이 잡힌 스커트를 착용한다. 장신구는 영화에서 가장 화려한 형태로, 장식핀을 머리에 전체에 둘러서 꽃았고, 목걸이를 여러 겹 둘러 늘어뜨렸다. 여기서, 알렉산드라 번이 재해석한 버터 플라이윙은 전면에서는 보면 나비 날개 모양이지만, 후면에서 볼 때는 베일과 합쳐진 형태로 심플해졌고 보석이나 진주 장식도 배재하였다. 그러나, 소재를 망사로 사용하여 하늘하늘한 나비 날개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특히, 알렉산드라 번은 각 장면의 복식에서 현대적인 절제미를 보여 주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16세기 여왕 복식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를 넣어서 화려한 요정의 이미지를 완성하였다<그림 7,8>.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V. 영화 <Elizabeth : The Golden Age>속 여왕복식의 색채 상징성

영화 <Elizabeth : The Golden Age>에서 여왕복식의 색채 상징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색채 상징성은 영화가 전개됨에 따라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한 상황, 심리 상태, 그리고 그녀가 이상화하고 싶어한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엘리자베스 여왕 복식에 나타난 색채 상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당시 영국에 지배적이었던 기독교적 색채관과 엘리자베스 시대의 색채관을 통합하여 영화 속 색채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붉은색 범주 : 왕의 색 vs 창녀의 색

영화에서 여왕은 붉은 색 계열의 복식을 입고 처음 등장한다. 이 시기의 붉은색계열은 긍정적 의미

<표 1> 엘리자베스 여왕 복식과 복식 이미지

영화장면	캐릭터	복식	복식 이미지
관료회의를 주재하는 여왕		거대한 수레바퀴형 러프칼라, 파팅게일의 가운 V자형 머리 장식.	권위적인 복식
윌터라일리를 사랑하게 된 여왕		작은 망사 러프칼라와 망사 파플렛, 망사로 된 소매, 여성스러운 목걸이.	여성적인 복식
스페인전을 지휘하는 여왕		흠 주름, 보석장식, 부피감이 있는 플라스틱런, 천으로 만든 파스가르드.	호전적인 복식
스페인전을 승리하고 시녀를 용서하는 여왕		팬칼라, 버터 플라이 왕, 보석장식 스토마커, 흰 파팅게일, 화려한 장신구.	여신 이미지의 복식

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는데, 여왕이 첫 장면에서 붉은 색 복식을 착용한 것은 여왕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양가적으로 부여하는 은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붉은색(기독교에서의 심홍)은 긍정적 의미로 왕의 색, 신의 사랑 등을 상징하였다. 여왕의 집권기에는 신교도의 극한 대립으로 여왕에 대한 구교도들의 저항이 거세었으므로 강력한 왕권 확립이 우선 과제였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의 승리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함으로써 여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종교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영국의 십자가를 지는 구원자적 이미지가 여왕에게 붉은 색이라는 색채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붉은색은 악마, 창녀 등 부정적 의미로도 쓰였는데, 여기서 여왕의 부정적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영화에서도 구교도인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창녀’라고 언급한다. 이는 구교도들이 신교도들에 대해 종교적 전통성을 배신했다는 은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

고, 그녀의 어머니인 앤 블레이크이 사람들로부터 ‘창녀’ 혹은 ‘매춘부’라고 불리며 불명예스러운 간통죄로 참수를 당하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녀를 비하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영화에서 붉은색 계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한 중의적 입장(왕의 색 vs 창녀의 색)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그림 9>.

2) 파란색 범주 : 여왕의 정절을 상징하는 색

붉은 색 계열의 복식이 여왕의 정체성과 카리스마를 보여 주었다면 파란 색 계열은 여왕의 정절과 신성을 상징하는 색채이다.⁴⁴⁾ 영화에서 파란색 계열은 영화 중반부의 주된 색상으로 극을 이끌어 간다. 영화에서 파란색 계열이 갖는 의미는 당시 영국인들이 원한 군주상을 살펴봄으로 더욱 명확해 진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심하던 시대 상황 속에서 여왕은 군주로서 남성의 기능을 훌륭하게 완수했지만 그녀가 여성이고 미혼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정치적 걸림돌이었으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정

절을 강조하여 정치에 이용하였다.⁴⁵⁾ 이와 같은 여왕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여왕은 ‘지상에서는 첫 번째 처녀, 천상에서는 두 번째 처녀’라는 찬사를 들으며 성모 마리아 다음 위치를 차지하는 성스러운 처녀로 자리매김하였다.⁴⁶⁾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여왕의 정책은 영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왕은 월터 라일리를 사랑하게 되면서 파란색 복식을 착용하는데 그동안 처녀 여왕으로서 강조해왔던 정절과 신성을 지키는데 있어 신하인 월터 라일리를 사랑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었다. 여왕은 자신의 사적인 사랑 앞에서도 확고한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 마리아와 같은 성녀의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것은 영국과 영국민에 대한 여왕의 정절을 상징하고 있다<그림 10>. 그러나 영화에서는 여왕의 정절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에 반해, 실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화에는 파란색 계열의 가운이 전무하다. 이것은 16세기 복식에서 파란색 계열의 위상이 높아졌고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후반, 영국을 왕실의 상징하는 주된 색이 붉은색이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영국(잉글랜드)의 국기였던 성조지 십자가(St. George's Cross)가 붉은색이었다는 점과 당시의 회화에 영국 왕이 붉은색 계열의 복식을 착용하고 프랑스 왕이 푸른색 계열의 복식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영국 왕실이 관습적으로 붉은색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⁷⁾ 그러나, 이러한 당시 색채관과 달리 알렉산드라 번은 영화에서 푸른색 계열을 여왕 복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란색을 통해 정절을 지켜야 했던 처녀여왕의 고뇌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현재 영국 왕실이 원저 블루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반영한 현대적 재해석으로 여겨진다.

3) 금색 : 여왕의 신성을 상징하는 색

파란색 계열이 정절과 신성을 상징하며 여왕으로서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사랑사이에서 고뇌하는 여왕의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했다면, 금색은 여왕의 공적인 삶을 나타내는 색채로 여왕이 대외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를 상징해 주고 있다. 금색은 신

의 빛을 상징하는 색으로 그 의미가 외연의 확대⁴⁸⁾를 이루어 고귀한 신권을 상징하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에 많은 왕들이 자신의 왕권과 권위에 신성을 차용하기 위해 금색을 썼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왕은 출생, 종교적 문제와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왕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위협보다는 여왕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사용하여 효과를 거두었다. 여왕은 대중 앞에서 화려한 행차와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을 지상(地上)의 여신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영화에서 이러한 여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식에는 스토마커가 금색으로 장식된 가운과 금색 장신구·소품이 사용되었다. 영화 속에서 금색은 세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주목해야 할 장면은 세 번째 장면으로 여왕은 자신을 영국 전체의 어머니라고 표현한다. 한 여자로서의 삶보다는 영국 전체를 보다 듣는 여왕으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대사인데 여기서 여왕은 금색 자수가 들어간 의상과 다양한 장신구를 착용한다. 이 장면에서 머리에 꽂는 장식핀, 목걸이, 귀걸이는 금색으로 빛나면서 그녀의 금색 자수가 들어간 흰색 의상 또한 강한 빛을 받아 금색 빛을 발하며 영화는 마무리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흰색이 가진 처녀의 순결함과 금색의 신성이 결합되어 여왕이 여신의 이미지로 승화됨을 알 수 있다. 이 여신의 이미지는 여왕이 금색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궁극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그림 11>.

4) 흰색 : 여왕의 순결을 상징하는 색

흰색은 금색과 마찬가지로 여왕이 대외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를 대변해 주는 색으로 순결, 순수, 무죄함을 상징한다. 영화에서 흰색은 여왕의 처녀성을 나타내는 색으로 여왕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 여왕은 시가행진 후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마다 흰색 가운을 착용하는데 이것은 처녀로서 육체적 순결과 신교의 신앙적 순수성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 흰색 가운은 모두 세 번 등장하는데 앞에 두 번은 여왕의 순결을 강조하는 정치적 목적에 흰색의 색채 상징성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가운과 장신구에서 흰색이 주

된 색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 번째 장면은 사적인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진 퀸으로서의 삶을 선언하는 장면으로 여왕의 순결함을 통해 여신의 이미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흰색 가운의 스토마커 부분을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흰색과 금색이 혼합된 가운을 착용하였다<그림 11>.

이렇게 영화에서 알렉산드라 번이 흰색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색과 함께 사용한 이유는 여왕이 자신의 처녀적 순결함을 정책적으로 이용하여 천상의 존재로 칭송받게 되었고 이것은 오랜 세월 여왕을 괴롭혔던 출생과 종교적 정통성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따라서 여왕은 확고한 왕권을 위해 자신에 대한 여신의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것은 곧 여왕이 사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평생 순결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라 번은 복식에서 흰색과 금색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여 여왕의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엘리자베스 시대의 기독교적 색채 상징성과 영화에 나오는 여왕 복식의 색채 상징성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VI. 결론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 1세의 전성기를 영상화한 영화 <Elizabeth : The Golden Age>를 통해 복식과 그 색채 상징성을 살펴보고 시대극에서 복식과 색채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 <Elizabeth : The Golden Age>는 1585년에서 1588년까지를 배경으로, 영국 르네상스 최전성기였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복식을 재현하였다. 특히 영화 속 여왕 복식은 시대적 고증을 밑받침으로 현사회의 미의식을 함축하여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의상감독 알렉산드라 번은 당시의 인위적이고 웅장한 팽대 복장에 현사회의 미의식인 모더니즘을 접목시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여왕 복식을 재창조 하였다. 구체적으로 알렉산드라 번은 코르셋과 파팅게일에 의한 지나친 축소와 과장을 줄이고 형태적인 면에서 현대의 모더니즘을 반영하여 복식을 단순화시켰다. 또한 디테일 장식에 있어 과다한 장식을 배제하여 절제미를 보여 주었고 더불어

<표 2> 엘리자베스 여왕 복식의 색채 상징성

색채 범주	영화 장면	여왕 복식 색채	기독교적 색채 상징성	여왕 복식의 색채 상징성	
붉은색 범주	관료회의를 주재하는 여왕		긍정적	예수의 피, 신의 사랑	종교적 구원자, 여왕의 위엄과 권위
			부정적	악마, 음녀	은유적 표현에 의한 창녀, 사생아
푸른색 범주	월터 라일리를 사랑하게 된 여왕			마리아, 신성, 정절, 신교의 도덕적인 색	처녀여왕의 신성, 정절
금색	스페인전을 승리한 여왕			신의 조명(illumination)	여신의 이미지
흰색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왕 (베빙턴 음모사건)			예수의 영광과 위엄, 천사, 죄사함 신의 빛, 순결, 순수	순결, 순수

어, 최근의 로맨틱 스타일의 부드러운 표현을 가미하여 인위적인 팽대복장에 유동성을 부여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은 공적인 여왕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체의 노출과 장식을 배제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복식-하이네크라인에 목 전체를 감싸는 수레바퀴형 러프칼라, V자형 머리장식-을 착용하여 왕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한편으로 사적인 여왕의 복식은 노출과 장식이 많아지는 여성스러움-데콜테된 가운, 망사 파들렛, 금색 구슬-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스러운 복식은 스페인과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전사적 이미지의 호전적인 복식-갑옷-을 착용하여 남성의 전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스페인전을 승리로 이끈 여왕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한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여왕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 때의 복식은 그 당시 문학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요정여왕-팬칼라, 버터플라이 왕, 화려한 보석장식, 순백의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 복식의 색채 상징성에서 붉은색은 양가적 의미를 가진다. 긍정적으로는 종교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의 십자가를 지는 구원자적 이미지와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였고 부정적으로는 종교와 출생에 관련된 정통성 문제를 은유적으로 비판할 때 사용되었다. 파란색 범주는 여왕의 마리아적 이미지, 정절, 신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된다. 여왕이 월터 라일리를 사랑하게 되면서 파란색 복식을 착용하였다. 여왕은 자신의 사적인 사랑 앞에서

도 확고한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 마리아와 같은 성녀의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것은 영국과 영국민에 대한 여왕의 정절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왕의 초상화에는 푸른색 계열의 가운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푸른색 계열의 복식의 잦은 사용은 파란색을 통해 정절을 지켜야 했던 처녀여왕의 고뇌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현재 영국 왕실이 원저 블루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반영한 현대적 재해석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흰색과 금색은 여왕이 이상화했던 여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색채로 복식에서 혼합되어져 사용된다. 신의 조명을 상징하는 금색은 왕권의 신성과 거룩함을 표현하였다. 특히 왕권에 대한 정통성에서 공격을 받아 온 여왕으로서는 금색이 지닌 색채상징이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속에서 표현된 주인공의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는 대사를 통해서 전달되기보다는 시각적 효과가 큰 복식의 형태, 이미지 등의 특성과 색채 상징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화에서 복식과 색채가 큰 상징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시대극의 경우, 복식사적 고증과 함께 심리적, 미학적 접근이 융합되는 분야임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시대극 영화 복식을 복식사적 미학적 접근에 의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복식과 색채의 상징효과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그림 1> 퀸 엘리자베스 칼라 버터플라이 왕, 흰 파팅게일.
The Ditchley Portrait (1592)
『A History of Fashion』 p.447



<그림 2> 수레바퀴형 칼라와 스토마커가 화려한 가운
The Ermine Portrait(1585)
www.marileecody.com



<그림 3> 정교한 러프칼라와 화려한 에플렛 가운
The Phoenix Portrait (1575)
www.marileecody.com



<그림 4> 수레바퀴형 러프칼라
V자형이 깃털 장식
권위적인 여왕 복식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그림 5> 망사 파들렛과
망사 소매, 보석 리본 장식
여성적인 여왕 복식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그림 6> 흉주름 보석장식
양감이 있는 플라스틱런
호전적인 여왕 복식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그림 7> 팬 칼라, 버터 플라이 윙
화려한 스토마커와 장신구
여신 이미지의 여왕복식(전면)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그림 8> 버터 플라이 윙,
웅장한 외관의 휠 파링게일
여신 이미지의 여왕복식(후면)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그림 9> 왕의 색vs창녀의 색
양가적 의미로 쓰이는
붉은색 범주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그림 10> 여왕의 정절을
상징하는 파란색 범주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그림 11> 여왕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색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그림 12> 여왕의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Elizabeth:The Golden Age
(2007)>.DVD

참고문헌

- 1) 조규화 · 이희승(2004), *패션 미학*, 수학사, p.257.
- 2) 배수정(1999),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중심으로 한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무대의상 연구”, *한국복식학회*, 48(10), pp.53-68.
배수정(2000),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 내재된 복식요소의 상징성 연구”, *한국가정과학회*, 3(1), pp.73-87.
조윤영 · 양숙희(2003), “영화의상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로브의 표현효과”, *한국복식학회*, 53(3), pp.89-106.
- 3) 나종일 · 송규범 (2005), *영국의 역사*, 파주: 한울, p. 321.
- 4) 박지향 (1997), *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p. 294.
- 5) Ibid., pp. 322-324.
- 6) 조규화 · 이희승, op.cit., p. 178.
- 7)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1997),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역), 자작 아카데미, p. 216.
- 8) Ruth M. Green (1966), *The Wearing of Costume*, London: Sir Isaac Pitman and Son, p. 160.
- 9) Countess Wilton (1846), *The Book of Costume*, London: R.L.Shep, p. 100.
- 10) Iris Brooks (1957), *A history of English Costume*, London: Methuen, p. 86.
- 11) James Laver (1989), *Costume & Fashion*, 정인희(역), 시공사, p. 98.
- 12) Douglas Gorsline (1953), *A History of Fashion*, London: The Bath Press, p. 446.
- 13) Braun-Schneider (1975), op. cit., p. 130.
- 14) Willett Cunnington (미상), *Handbook of English Costume*, London: Faber Press, p. 171
- 15) Blanche Payne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p. 322.
- 16) Countess Wilton, op. cit., p. 107.
- 17) 배수정(1999),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무대의상 연구”, *한국복식학회*, 48(1), p. 55.
- 18) 조은희 · 조규화 (2001), “셰익스피어의 The Tempest 무대의상 연구”, *패션비즈니스*, 5(2), p. 26.
- 19) 조규화 · 이희승, op.cit., p. 441.
- 20) *아가페 큰글 성경* (1999), 아가페 출판사, p. 45.
- 21) Ibid., p. 416.
- 22) Edmund Spenser(미상), *The Fairy Queen*, London: George Routledge, p. 2.
- 23) Ibid., p.79.
- 24) Ibid., p. 259.
- 25) Michel Pastoureau (2000), *Blue*, 고봉만 · 김연실(역), 한길아트, p. 61.
- 26) 浜本隆志(2007), *색채의 마력*, 이동민(역), 파주: 아트북스, p. 97.
- 27) 浜本隆志, op.cit., p. 34.
- 28) Ibid., p. 34
- 29) Ibid., p. 36.
- 30) *아가페 큰글 성경*, op.cit., p. 797.
- 31) Edmund Spenser, op.cit., p.124.
- 32) 조은희 · 조규화, op.cit., p. 26.
- 33) 조규화 · 이희승, op.cit., p. 260.
- 34) *아가페 큰글 성경*, op.cit., p. 398.
- 35) Edmund Spenser, op.cit., p. 3.
- 36) 조규화 · 이희승, op.cit., p. 444.
- 37) Ibid., p. 452.
- 38) “세카르 카푸르 감독”, 자료검색일 2008. 4. 23, 자료출처 <http://www.videokorea.com/movie>.
- 39) “코스튬 드라마”, (2008,3,11), 자료검색일 2008. 4. 20, 자료출처 <http://www.goldenage2007.co.kr>.
- 40) “의상감독 알렉산드라 번”, (2008, 1.12), *무비스트* 자료검색일 2008.4.17, 자료출처 www.dvdtopic.cine21.com.
- 41) 박지향(2004), “처녀왕 엘리자베스의 신화”, *영국사학회*, 11(1), pp. 31.
- 42) Boutell, Charles(2003), *무기의 역사*, 박광순(역), 가람, p.164.
- 43) Ibid., p.204.
- 44) 조규화 · 이희승, op. cit., p. 268.
- 45) 박지향 (2004), op. cit., p. 36.
- 46) Ibid., p. 30.
- 47) 浜本隆志, op.cit., p. 86.
- 48) 조규화 · 이희승, op.cit., p. 286.

접수일(2008년 6월 2일)
수정일(1차 : 2008년 8월 6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1일)